



진화하는 글로벌 차량공유 산업 동향

Market Trends in the Global Car-sharing Industry

안미소 An, Miso • 연구원 Researcher, SPRI • misoan@spri.kr

경기 침체,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공유를 포함한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의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시장이 확대되며 기존의 차량공유 업체 및 완성차 업체, ICT 기업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및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글로벌 차량공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merging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and as a part of efforts to overcome and mitigate economic recession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haring economy, especially 'car sharing', is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key innovation strategie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is context, car sharing companies, automakers, and ICT companies are competitively entering the increasingly growing market across the globe.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relevant authorities' regulations and conflicts with conventional economic players. For this reason, more careful and flexible strategic responses are needed to keep pace with the current trends in the global car sharing market.

차량공유의 개념 및 분류

차량공유는 1984년 스위스의 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공용자동차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미국의 집카(Zipcar)*가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서비스 제공하며 오늘날의 차량공유 개념이 완성되었다. 차량공유의 일반적인 정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에게 시간단위로 차량의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¹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교통 및 이동수단 관련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공유 모빌리티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차량공유는 크게 ‘쏘카’나 ‘그린카’처럼 전통적인 렌터카 사업과 비슷하나 영업소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Car-Sharing)’과 ‘카카오택시’와 ‘우버’처럼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카헤일링(Car-Hailing)’, ‘풀러스’와 같이 자동차를 함께 타는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카셰어링을 제외한 차량공유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² 자세한 분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차량공유 종류 및 개념

차량공유 종류		대표기업	
카셰어링 (Car Sharing)	Peer-to-peer car sharing (P2P)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방식	스냅카(SnappCar)
	Stationary car sharing (B2C)	이용자가 서비스 지점으로 이동하여 차를 대여 및 이용 후 다시 해당 지점으로 반납하는 방식	집카(Zipcar) 플링크스터(Flinkster)
	Free-floating car sharing (B2C)	이용자가 주변에 이용가능한 차량을 검색하여 대여 및 이용 후 가 반납장소(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 등)를 검색하여 반납하여 단방향(Oneway)이용 가능	셰어나우(car2go와 DriverNow 합병) 윗카(Witcar)
라이드셰어링 (Ride Sharing)	카풀의 개념과 같으며 이동을 원하는 차를 보유한 개인과 목적지 방향이 유사한 개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풀러스 우버풀 벅시	
카헤일링 (Car Hailing)	이동을 희망하는 고객과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호출형 승차공유 서비스(Ride Hailing)*, 공유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로 부르는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Car Hailing)가 있음 * 기존의 라이드셰어링이 라이드헤일링으로 변화되는 추세임	우버(Uber) 리프트(Lyft) 디디(Didi Chuxing) 그랩(Grab) 카카오택시	

※ 자료 : KPMG(2019.8.), TaaS 투자로 본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 재구성

* 집카 : 2000년도에 세워진 미국의 차량공유 업체로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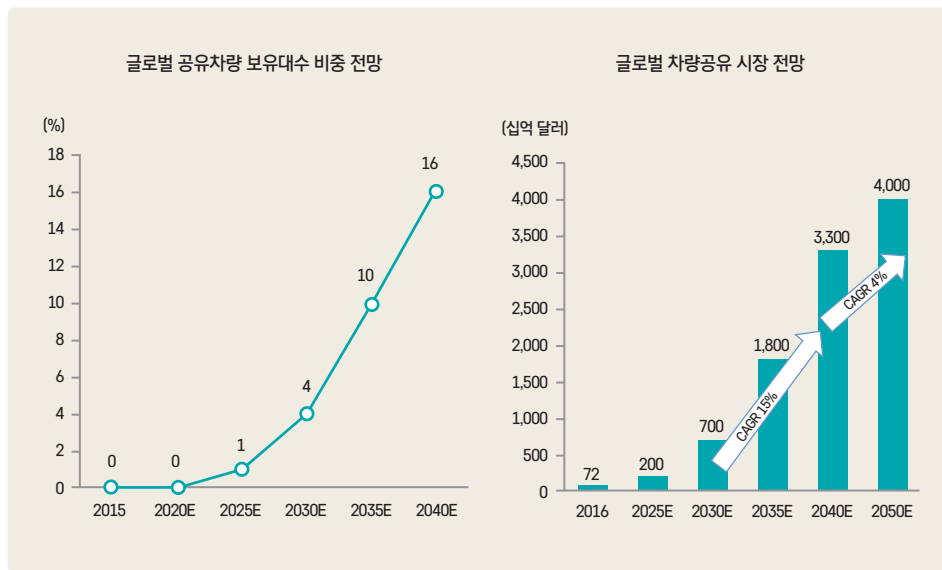
1 한국교통안전공단(2018.10.), 카셰어링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2 CBS뉴스(2019.4.), “오너드라이버가 사라진다”...커지는 공유차시장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 동향 및 전망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차량공유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차량공유의 확산으로 2030년에는 일반소비자 자동차 구매가 현재보다 최대 연간 400만 대 감소하고 차량공유용 판매는 200만 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PMG는 2035년부터 완성차 수요가 연평균 4.4%씩 감소하는 반면, 전 세계 공유차량 보유대수는 2040년에는 16%까지 증가함에 따라 차량공유 시장은 2040년까지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여 장기적으로는 공유차량 보유대수가 완성차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 참조)³

그림 1 차량공유 시장 전망 및 보유대수 비중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차량공유 기업들의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와 우버는 2019년 초 상장하여 완성차기업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 2위인 중국의 디디는 1일 3,100만 회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³ KPMG(2019.8.), TaaS 투자로 본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드는 완성차기업

신차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차량공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다임러와 BMW는 각자 운영하던 차량공유서비스인 '카투고(Car2Go)'와 '드라이브나우(DriveNow)'를 합병해 '셰어나우(ShareNow)'를 설립하여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단순 자동차생산'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 전환하기 위해 중동의 최대 카셰어링 기업 '카림'에 연말까지 5,000대의 공유차량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최대 차량호출 기업인 '올라'에 3억 달러(약 3,400억 원)를 투자하였다.⁴ 이 외에도 그랩(Grab), 올라(Ola), 카넥스트도어(CarNextDoor)에도 투자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여 진화하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단순히 차량과 승차를 공유·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자율주행 기술이 연계되며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어지므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운전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실제 자동차를 소유한 것처럼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차를 호출하여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신기술 연구소 리싱크엑스(RethinkX)는 카셰어링 및 카셰어링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전체 승객 이동의 95%가 자율주행으로 재편될 것이라 예측하였다.⁵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와 기존 카셰어링 업체 간의 투자 및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테슬라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까이 있는 테슬라 차량을 자동운전 모드로 호출해 목적지까지 무인운전 상태로 이동하는 로보택시(Robotaxi)를 2020년까지 100만 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테슬라는 국내 차량공유 업체인 쏘카와 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테슬라 모델S를 대여하여 평소에는 자차처럼 사용하되 쓰지 않는 시간에는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카셰어링모델)를 제공할 계획이다.

⁴ 조선비즈(2019.5.), "현대차, 중동 카셰어링 기업 '카림'에 차 5,000대 공급"

* 실제 라이드셰어링 요금에서 운전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5%~80% 수준으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운행하면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미디어리퍼블릭, 2019.7.)

⁵ HMG 저널(2019.7.), '자동차 공유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들'

그림 2 테슬라 로보택시



※ 자료 : Ttimes(2019.5.)

볼보는 우버와 협력하여 볼보의 자율주행차 모델 24,000대를 우버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폭스바겐 그룹은 라이드셰어링 자회사인 '모이아'를 통해 자사의 전기차를 활용한 라이드셰어링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표 2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와 차량공유 협업 현황

기업	내용
볼보 x 우버	우버는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협업을 하던 볼보에 자율주행차를 2019~2020년에 걸쳐 24,000대를 발주하였음 볼보의 XC90에 우버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기술을 위한 다양한 센서와 장비가 부착되어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주행을 목표로 함
폭스바겐 x 모이아	폭스바겐 그룹은 직접 라이드 셰어링 회사 "모이아"를 설립하고, 전용 전기 미니밴을 개발함 모이아를 2025년까지 세계 3대 모빌리티 브랜드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독일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해나갈 계획임
현대자동차 x LA시	LA시와의 협약하여 '모션랩' 설립을 통해 LA의 주요 지하철역 4곳(유니언-웨스트레이크·퍼싱·7번가역)의 주차장을 거점으로 공유 차량을 배치하는 사업 전개 계획
웨이모 x 리프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서비스를 개시하여 리프트 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구글 웨이모의 자율차를 선택해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선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음

※ 자료 : 엔카매거진(2018.2.), 자동차 회사와 라이드 셰어링 업체의 짝짓기 현황 재구성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차량공유 업체 및 완성차 업체, ICT 기업이 앞다투어 이 시장에 뛰어들고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5G 서비스, 모바일 등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국내의 법적규제 및 기존 운송사업자의 반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국제혁신스코어카드(International Innovation Scorecard)'에서 우리나라는 차량공유 부문에서 F등급을 받으며 '한국은 차량 공유 금지 같은 공유경제 규제를 철폐해야 이 부분에서의 F등급을 면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차량공유 시장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책마련과 함께 기존 산업계를 위한 별도의 보완책을 제시하여 차량공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